

여야, 윤정부 2기 내각 '청문회 슈퍼워크' 격돌

장관 후보자 6명 인사청문회 야, 과거 이력 등 '송곳 검증' 강도형 음주운전 등 집중공세 국힘 "민주, 국정 운영 방해"

여야가 이번 주부터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신임 장관 후보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민주당은 후보자들의 과거 이력 및 전문성을 겨냥해 철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 운영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무리하게 인사 검증을 시도한다고 논리를 펼 예정이다.

이번 인사청문회 결과는 연말 정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한두명 장관이 낙마할 경우 여당은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장관에게도 큰 타격을 줘 여권이 코너에 몰릴 수도 있다.

반면 장관 후보자들이 모두 무난하게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여권이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19일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인사 청문회 대상이다.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의 청문회 날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미 각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베풀고 있는 상태다.

특히 강도형 후보자는 과거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 논문 표절 의혹으로 도마에 올랐고 아내 위장전입 의혹까지 불거져 야권의 집중 공세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강 후보자는 중대한 '전과'가 있어 장관 자격이 안된다고 자진사퇴와 더불어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부실검증 책임을 제기하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강 후보자는 민주당의 낙마 대상 1호로 꼽힌다.

야당은 송미령·박상우 후보자에 대해서도 논문 표절 의혹과 LH 재임 시절 이해 충돌 논란 등을 제기했다.

후보자 전문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야권은 현 정부 초대 대통령실 경제수석 출신인 최상목 후보자에게 고물가 등 경제 위기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오영주·강정애 후보자는 그간의 활동 이력에서 각각 외교부와 보훈부 관련 경험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도덕성, 전문성 그 어느 것 하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뿐"이라며 "민생은 파탄 지경인데 대통령과 장관들은 총선에만 마음이 가 있으니 국민은 분통이 터진다. 부적격 인사를 자진철회하고 제대로 된 인사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정부 인사에 협조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무리한 검증'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강도형 후보자 정도를 제외하고 무난하게 임명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청문회 과정 통해 야당이 문제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람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제까지 '인사 참사'라는 얘기를 너무 자주해왔기 때문에, 어쨌든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해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민주 의원 60여명 '이낙연 신당 만류' 연서명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을 반대하는 60여명의 의원들이 17일 이 전 대표의 창당을 만류하는 취지의 연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강득구, 강준현,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부터 의원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을 만류하는 취지의 연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67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성명에는 서명을 받기 시작한 세 명의 초선 의원들뿐 아니라 우원식, 윤호덕, 김영주 등 중진 의원들도 다수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영 의원은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은 계파 문제가 아니다"며 "친명이면 반대하고 아니면 찬성하는 상황이 아니라 당 내에 엄청나게 폭넓은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파 구립 구도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시작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준현 의원의 "당의 분열을 막고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에서 이 전 대표의 창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당내 최대 의원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는 지난 15일 이 전 대표를 비판하며 신당 창당 선언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뉴스스



김태섭·조성주 '새로운선택' 창당대회

양향자(왼쪽부터)한국의희망 대표, 조성주·김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김중진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선택 창당대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스

박지원 전 국정원장, 해남서 출판기념회 성료

22대 총선에서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 출마하는 박지원(사진) 전 국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데 이어 출판기념회를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박 전 원장은 지난 16일 오후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지금 DJ라면'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 명현관 해남군수, 신우철 완도군수, 김희수 진도군수, 당원, 주민 등 3000여 명이 참석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강기정 광주시장,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 등은 영상을 통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번 책에는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을

위한 DJ 비서실장 박지원의 진심 어린 충고가 담겨 있다.

이재명 대표도 축사를 통해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시기, 국민의 삶이 어려운 시기"라며 "국민을 향한 진심, 민주주의를 위한 선택을 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선택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DJ의 말씀, 행동, 고민을 곱씹어 다시 한 번 세상에 알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반성하고 달라지기를 바란다. 또한 야당은 비판 대안 세력으로서 더욱 강해지기를 바란다"며 "그들이 이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을 향해 위기 극복에 나서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창지 기자



이재명 대표, 김부겸-정세균과 연쇄 회동

선거제·이낙연 신당 해법 모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 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만나 당내 현안을 논의한다. 신당 창당 의지를 밝힌 이낙연 전 대표의 공세에 직면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출신인 두 전직 총리에게 당 상황에 대한 조언을 구하겠다는 취지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오는 20일에 김부겸 전 총리를, 28일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각각 만나기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권철승 수석대변인은 "최종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당의 단합을 위해 원로분들이(좋은) 말씀을 해주

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두 전 총리가 논의할 현안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선거제 후퇴 논란, 비주류의 대표직 사퇴 요청,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두 전직 총리에게 당내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표가 탈당 가능성을 시사하며 신당 작업 속도를 내자 정세균·김부겸 전 총리와 만남을 추진했다. 사실상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손길을 거부하고 독자 노선을 택한 만큼 이 대표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단합'을 강조하며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반드시 국민들의 기대에 맞춰 승리하기 위해 해선 혁신도 중요하고 통합도 중요하고 두 가지의 지향점을 잘 조화하는 게 정말로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두 전직 총리와 만남에서 가시적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두 전직 총리 모두 민주당 상황에 급지 않을 시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대표와 이 전 대표, 김 전 총리는 18일 다큐멘터리 영화 '길 위에 김대중' VIP 시사회에서 만날 가능성이 나왔으나 각각 다른 시간대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김선욱 기자

국힘 광주시당 "호남 내 여당 의원 당선 시킬 것"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내년 총선에서 호남 내 여당 국회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한 전략 대책 수립에 나섰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지난 15일 서구 치평동 홀리데이인 웨딩홀에서 주요 당직자 워크숍을 열고 2024년 총선승리를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으로 광주를 새롭게'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워크숍에는 주기환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8개 당원협의회 위원장, 시의원, 시당 운영위원, 당협 핵심

당직자 및 당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주기환 시당위원장 주재로 내년 광주시당의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 활성화 방안 △인재영입 △책임당원 확보 △총선 공약 및 정책 발굴 △지역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고 내년 4월 총선 필승 각오를 다졌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민의힘 최초로 광주에서 여당 국회의원 1명 이상을 당선시켜 광주에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이끌어 낼 것을 결의했다. 김은지 기자

한동훈 비대위원장론... "당 쇄신 필요" vs "검찰당 전략"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을 둘러싼 당내 시각 차이가 뚜렷하다. 진윤(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주류 인사들은 당 쇄신과 내년 총선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한 장관 카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비주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로 불리는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선임되면 '검찰당'으로 전략적 수평적 당정관계를 재정립하기

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여당 내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론'을 두고 주류와 비주류 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먼저 진윤계에서는 '한동훈 비대위' 체제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주자로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한 장관이 당 쇄신과 내년 총선을 이끄는 간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참신한 이미지를 무기로 20대부터 40대까지 젊은층의 지지율을 올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비주류 측은 '한동훈 카드'를 꺼내들 시점이 아니라는 부정적 반응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어 한 장관이 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을 차지하면 검찰 정부에 검찰 정당이라는 부정적 여론에 직면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겨냥한 야권의 집중공세가 이어질 것이고, 이러면 이제 막 발을 댄 한 장관의 정치 행보에 득이 될 게 없다는 거다. 뉴스스